

예술가의 소금같은 문화공간 꿈꾼다



솔트 아트갤러리 안오한 관장

광주시 동구 계림동 일대는 한때 광주에서 오래된 한책방이 가장 많았던 곳이었다. 예전에는 참고서는 물론 고전 등 책을 사고팔던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예전만큼 한책이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이 계림동을 떠났다. 슈퍼마켓과 세탁소 등 동네 가게들과 몇 집 건너 겨우 만날 수 있는 한책방들만 여전히 쓸쓸하게 거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이곳에 솔트 예술갤러리(Salt Art Gallery·이하 솔트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말 문을 연 솔트갤러리는 벌써 이 일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다.

1일 광주고 앞 사거리에서 학교를 등지고 조금 걷자 CTS광주방송 건물 1층에 거리 분위기와 달리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통유리 너머 모니터와 벽면에서는 오래된 그래픽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내부는 화이트와 브라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동양적인 느낌을 안겨주기도 했다. 통유리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갤러리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곳 주인장인 안오한(34) 관장은 이력이 독특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계림초 1학년 때 가족과 함께 벨기에행 비행기에 올랐다. 벨기에 대학에서 광고를 전공하고 광고회사에 다니던 그는 지난 2006년 17년 만에 귀국했다. 음악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음악에 매료됐던 그는 한국에서 작곡가로서의 삶을 꿈꿨다. 서울 생활이 쉽지는 않았다.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지만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한국어가 서툴렀다.

“처음 귀국할 때는 다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벨기에가 차가운 느낌을 준다면 한국에서는 분위기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에 내려와 한국어를 배우



초1 때 벨기에행...17년만에 귀국 광고 디자인·실험 음악 작업 이력

10월 고향 계림동 광주고 앞 오픈 비디오 아트·퍼포먼스·연주회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 예술가 초대

평일 밤 9시...금~토 밤 10시까지 5일까지 우크라이나 작가 개인전

면서 점차 한국 문화를 알아갔죠. 클럽과 문화공간에서 예술을 하는 외국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을 소개해줬죠. 제가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해서 그런지 외국인 친구들과 먼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안 관장은 서울에서 포스터 디자인, 실험 음악, 다큐멘터리 음악 작업 등을 하는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문화공간 대표들과 만나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벨기에에서 인공 독일, 프랑스를 오가며 미술을 접하기도 했던 그였다.

“갤러리는 광주에 열고 싶었어요. 왜 계림동이냐고요? 처음에는 이곳저곳으로 공간도 알아봤죠. 이곳에 저희 갤러리와 같은 공간이 생기면 다른 공간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건물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픈 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4차례 전시가 열렸다. 그동안은 서울에서 안 관장과 친분을 쌓았던 국내의 작가들이 다녀갔다. 한지에 페인팅 작업을 선보인 작가가 있었고, 비디오 아트를 선보인 작가도 있었다.

특히 매주 실험 음악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들이 이 공간에서 공연을 열고 있다. 퍼포먼스 아티스트 손세민, 비브라본 연주자 존벨, 일렉트로닉 음악 듀오 텡거(Tengger) 등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 도중 안 관장이 갤러리에 놓인 건반으로 즉흥 연주를 들려주기도 한다. 벌써 내년 2월까지 전시 일정도 빼곡하다.

“연말까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 위주로 전시가 열려요. 내년부터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가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은 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티스트들도 갤러리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전시, 공연이 많이 열리거든요. 광주에서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아직 전문가는 아니니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솔트 갤러리는 이름은 안 관장이 스스로에게 주는 자극이다. ‘너 자신의 할 일을 잊지 말라’는 의미다. 하나 특이한 것은 갤러리 운영시간이다. 월~목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금~토요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문을 연다”는 게 안 관장의 말이다.

오는 5일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공부한 아르툰 이바노프의 전시가 열린다. 문의 062-415-075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학관 2문화수도 연계 친환경·독립적 장소 선정을”

추진위 간담회 “사회적 물의 인물·단체 배제돼야”

광주의 대표 문인 단체들이 (가칭)광주문학관 부지로 광주 정신의 상징성을 지니면서도 접근성 및 주변 문화공간과 연계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독립적인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시가 문학관 부지 찾기에 고심 중인 가운데 올 초 ‘전일빌딩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협의회’에서 전일빌딩이 부상했던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문인협회(회장 강만·이하 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이하 작가회의) 두 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문학관 추진위)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해줄 것을 광주시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문학관 추진위는 “광주문학관은 광주정신과 함께 아시아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광주 문학’ 위상을 널리 펼치는 문학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회의와 문인협회는 올 초부터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거쳐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관 추진위는 조진태 작가회의 회장과 강만 문인협회 회장을 공동 대표로 9명의 위원과 3명의 고문을 포함 모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문학관 관련 사항에 공동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학관 추진위는 “광주시에 문인 단체가 중심에 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진기구를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인물과 이와 관련된 임의단체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단체는 “광주문학관 콘텐츠는 지역 문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학작품에 갖는 광주 정신과 가치를 보존·계승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학관을 주 테마로 전시와 교류, 창작과 향유, 도서관과 자료실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 문화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적 오페라·뮤지컬 극장서 만나요

메가박스 광주 오페라 ‘윌리엄 텔’ CGV 광주 ‘빌리 엘리어트...’ 상영중

오페라, 뮤지컬, 발레... 화제를 모은 공연 작품을 영화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매주 수요일(오후 7시)과 토요일(오후 2시) 오페라 등 클래식 공연 작품을 선보이는 메가박스 광주는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 ‘윌리엄 텔’(사진)을 상영중이다.

로시니 탄생지인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리는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2013년 공연된 ‘윌리엄 텔’은 현대적인 무대 세트와 드라마틱한 연출로 눈길을 끈다. 4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이지만 귀에 감기는 멜로디와 출연 성악가들의 열연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으며 특히 마지막 신이 압권이다.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13세기 초 스위스를 배경으로 활의 명수 윌리엄 텔과 생사유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따로 떼어 내 맡아 연주해 익숙한 ‘윌리엄 텔’ 서곡과 아름다운 아리아를 만날 수 있다.

윌리엄 텔 역의 니콜라 알라이오, 멜히탈 역의 시모네 알버기니 등 세계적인 성



악가들이 출연한다. 오페라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작품이다.

CGV 광주터미널에서 단독 상영중인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라이브’는 지난 9월 28일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열린 오리지널 공연 실황을 그대로 담은 작품이다. 영국 전역을 비롯해 프랑스 등 9개국에 상영된 공연 실황으로 역대 최연소 빌리, 엘리엇 한나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solidarity’ 등 ‘라이언 킹’으로 유명한 엘튼 존이 만든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으며 2005년 3월 이후 출연했던 27명의 빌리가 함께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www.geumsoojang.com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형 컨벤션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